

People & Life

나로호 발사 성공 기원 '해뜨는 고흥' 발표한 가수 이영만씨

“나로호 실패 이겨내고 꼭 다시 성공할 것”



“나로호는 꼭 다시 날아올 것입니다. 내 고향 고흥의 자랑인 나로호처럼 제 음악인생도 다시 날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뜨는 고흥’이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가수 이영만(52·서울시 영등포구)씨는 나로호의 발사 성공을 간절히 바라며 가수에 대한 자신의 꿈도 쏘아올렸다. 고향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노래를 발표한 이씨는 발사된 나로호가 통신두절됐다는 소식에 “아름답게 있었지만 꼭 다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찾은 관광객에 음반 무료 배포

이씨의 친형인 영호(55·서울시 강남구)씨는 고흥 향우회와 전남향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친형의 영향으로 평소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던 차에 형이 “고향을 위한 노래를 만들자”고 제안해 노래를 발표했다. 형이 작사하고, 이씨가 작곡·노래를 했다. 20대 시절, 서울 무교동의

‘진스’라는 그룹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이씨는 25여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씨가 25년만에 가수활동을 하면서 ‘해뜨는 고흥’으로 시작한 것은 고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다. 고흥군 포두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씨는 유자가 주렁주렁 열리고, 시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시골마을을 회상한다. 일년에 2~3차례 고흥을 찾아 친구들을 만나는 이씨는 나로도에 우주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형과 함께 될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이씨는 ‘해뜨는 고흥’의 의미에 대해 “나로호 발사는 고흥 사람들뿐 아니라 국민의 희망과 꿈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를 향해 나로호 인공위성 날아가다/ 너와 나의 꿈을 가득 싣고 내일을 향해 날아가다”는 가사인 이씨가 생각하는 나로호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이다.

이씨의 나로호에 대한 시선은 각별하다. 이씨는 25년 전 가수활동을 접고 영상·석유·의류·음식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5년 전 아쉽게 준비했던 품자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패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2~3개월 입원하던 사이 인생에 대한 회의와 이씨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 때부터 작곡을 시작, 틈틈이 노래 연습을 했으며 결국 꿈을 이룬 것이다.

20대때 '진스'그룹 보컬 활동

이씨는 “작년 여름 여러 차례에 걸쳐 미뤄지고, 발사를 실패한 나로호를 보면서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실패를 거듭해도 결국엔 해내게 된다며 우리 인생살이도 결국은 희망과 희망이 되며 우리 인생살이도 결국은 희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라고 말하는 이씨의 눈에 의미 부여했다.

지금까지 이씨는 1만여장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지인들과 고흥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료 배포 이유에 대해 “내 고향 고흥을 알리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이씨의 눈에는 앞으로의 활동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러 있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농사 풍년·나라 번영 기원

16일 광주 사직대제 봉행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의식인 광주 사직대제(社稷大祭)가 오는 16일 봉행된다.

광주사직대제집행위원회(위원장 장두석)는 단오날(음력 5월5일)인 16일 오전 10시 광주 사직공원 내 사직제단에서 단기 4343년 광주 사직대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농사의 풍년을 좌우하는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에게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전통 제례의식으로 광주에서는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거행되지 못하다가 2008년 11년만에 복원돼 치러지고 있다.

이날 사직대제는 의례에 따라 제례행사, 제례약, 발원문(배달조곡 우송풍조 농사풍년 나라번영 국민건강 민족자주 조국통일 소원성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두석(73) 집행위원장은 “광주 문화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향, 예향, 의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제를 준비했다”며 “정파와 종파 계층간의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직대제준비사업추진위원회는 배달문화선양회를 중심으로 사직제단 중건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2-227-900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홍석 광주상의회장 호남대서 명예박사학위

박홍석(65)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호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개교 32주년을 맞은 호남대(총장 장병완)는 오는 15일 광산캠퍼스 상하관 강당에서 열리는 개교 기념식에서 박회장에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생활용품 제조업인 (주)럭키산업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성과 장애인에 다수 고용해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광주방송문화재단 이



사장, 광산장학재단 이사장, 빛고를 장학재단 이사,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박 회장은 또 지난 2001년 KBC광주방송 대표이사로 취임 후,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예고 김하서 동아 무용콩쿠르 최고상

김하서(17·광주예고 3년)양이 제 40회 동아 무용콩쿠르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최근 막을 내린 동아콩쿠르 한국무용 창작 고등부에서 ‘그리운 황후’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국내 최고 권위의 무용 콩쿠르로 꼽히는 동아무용콩쿠르 한국무용 창작 부문에서 광주예고 출신이 금상을 받은 건 개교 40년만에 처음이다.

김미숙하나무용단장인 김미숙씨가 안무를 맡은 ‘그리운 황후’는 2천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왕비인 인도의인 허황옥이 왕비로서 겪는 고뇌와 고향인 인도를 그리는 마음을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호남예술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김양은 이후 원광대 전국무용경연대회, 전남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제 등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했다. 이번 콩쿠르 수상으로 대학 수시 입학 자격을 얻은 김양의 목표는 서울대 진학. 김양은 한국 무용계를 이끌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내방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씨

50개사 불합격·암수술 좌절 딛고 다국적 기업 입사

“도전 멈추는 순간 꿈도 사라지죠”

에세이집 낸 여수 '골든벨 소녀' 김수영씨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던 김수영(여·29·여수 출신)씨가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은 에세이집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웅진지식하우스 펴냄)를 펴냈다.

골든벨도 울리고 책까지 썼지만 김씨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여천에서 태어난 김씨는 중학교 때 가솔렸고, 학교를 중퇴하는 등 출발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검정고교로 1년 늦게 실업계 고교인 여수정보과학고에 들어간 후 변했다. 대학 진학을 단기 목표로 세우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담당하 연세대에 합격했고, 고교 졸업은 앞두고 출연한 지난 1999년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려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때 국내 50여개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가도에 들어섰지만 그에게는 시련이 타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것. 수술이 잘 됐지만 인생의 위기를 겪은 그는 새로운 꿈을 짓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73가지를 정해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김씨는 오늘

의 자신을 잊게 한 원동력으로 4가지를 꼽았다.

늘 새로운 세계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려는 열망, 비록 가진 것 같지 않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그 장벽을 넘어하려는 의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창피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 것도 아니었을 때 힘이 되고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셸의 마케팅 담당 매니저로 일하는 그는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꿈은 삶의 존재 이유이자 인생의 목적”이라며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에 충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주 북구 2년 연속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

완도군 버금상



송광운 청장 김종식 군수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년연속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버금상을 수상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광주방송(KBC)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0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에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됐다.버금상에는 완도군 ‘잠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대상지인 삼산마을(이장 안선옥)이 뽑혔다.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7년도부터 책 읽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해 사랑나눔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삼산마을은 고장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도 금암삼산마을은 장흥군 회진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58가구 주민 119명이 살고 있다. 삼산마을 주민들은 옛것이 사라져가는 추세속에서도 전통적인 마을자원을 발굴해 돌담길과 전통우물들을 복원하고 마을가꾸기에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마을 아름다움이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돌담길 보수 ▲광나루 보호 ▲숯대조성 ▲담쟁이덩굴 식재 ▲벽화길 조성 ▲전통 우물복원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금암팔경’(金塘八景)과 연계한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마을로 발전시켰다.

올해 7회째인 좋은이웃 밝은 동네 대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를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주는 상이다. 2010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충행기자 golee@

/서부취재본부=정문조기자 ejchu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강신숙씨 막내 이상신군 공재웅(삼성화재 공재웅 대리점대표)·정목란씨 막내 정은양=12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삼일교회 B관 1층(소예배실) ▲허영철(해남부군수)·김정순씨 장남 진호군(전남개발공사) 최성근(전 농업 강진군 지부)·이만심씨 막내 화영(현대자동차)양=12일(토)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웨딩홀 3층(컨벤션홀) ▲이상욱(세무사)·명옥기씨 장남 승훈군 김기곤·고영란씨 장녀 지인양=12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이영순씨 차남 영호군 김민숙씨 차녀 수진양=12일(토) 오후 1시30분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주옥진(전 광주시 건설국장)·

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엘커머셜 사장)·진재준씨 장녀 회정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에벌루션 웨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김관도·우대순씨 차남 태우군 진용남씨 차녀 나유진양=13일(일) 낮 12시20분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고재우·채정남씨 차남 현국군 김광선·이순우씨 장녀 진경양=13일(일) 오후 1시20분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도니스홀)

동창·동문회

▲조대부고 제 29회 졸업 3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승태) ‘홀 커밍 데이’=12일(토)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연회장), 010-3635-0488. ▲광주 체육중·고등학교 총 동문

가족 체육대회=13일(일) 오전 10시 광주체육고등학교 운동장, 010-2606-2283.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동문(회장 김운기)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구 계림동 계림수산회관 2층, 016-611-2858.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17회 모교방문의 날=19일(토)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 홀)

향우회

▲재광발교 향우회(회장 최재송) 2010년 상반기 모임=11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 힐링파크관광호텔 8층, 062-227-8500.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복상중 추구부 장학금 후원회 모임=19일(토) 오후 6시 하남 콜롬버스 2층 대연회장, 참석예정 : 김동철·이낙연 국회의원·송영길 인천시장 등. 011-645-4588(학부모회장 유상순).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모집=결혼이주여성 초보염마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

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맘보유엔터 살사동호회 회원수시모집=총장동 3가 층과 앞 대밭다실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생충동 원불교,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은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린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빌딩 1층, 062-651-1175~6.

▲마을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무로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화·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제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자산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테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제자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

마음까지 편안함 - 김호철레식장 227-4000.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여수지, 유숙지. 06월 11일, 06월 11일, 06월 11일. 영리후원. 참가요원의 명복을 빕니다. 빈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부음

▲박정훈씨 별세 준영·향연씨 부친상=발인 12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동채씨 별세 성근·귀숙씨 부친상=발인 11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